

육계산업의 일관 생산체제

김 정 주

건국대학교 농업경제학과

1. 머리말

오늘날 한국 육계산업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에 비유될 수 있다. GATT/UR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 되면서 축산부문의 수입개방조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1997년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수입이 완전 개방되면 하루 아침에 한국 축산기반은 무너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구동성으로 지금부터라도 최종 소비자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대안이 많지 않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육계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일관 경영체제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2. 육계의 국제 경쟁력

최근 자주 거론되는 말이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말이다.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육계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수준인가? 이는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격경쟁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일본시장에 수출되는 원산지별 닭고기 통관가격을 보면 다음 표1과 같다. 즉, 미국산 닭고기가 가장 저렴하고 태국산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내 도착가격과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같은 기간의 우리나라 닭고기 도매가격 1,710원과 비교하면 미국산의 61%, 중국산의 88%, 브라질산의 82%에 이르고 있으며 태국산의 경우는 110%로 오히려 국내 도매가격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태국산 닭고기가 이처럼 비싸게 일본에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수입량의 대부분이 일본의 계열회사 제품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가격면에서 우리의

닭고기 가격은 외국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표1. 일본의 원산지별 닭고기 통관 가격(원/kg)

원산지	빠있는 다리육	기타육	평균(A)	%*
미 국	954	1,233	1,045	61.1
중 국	1,459	1,520	1,500	87.7
태 국	1,594	1,907	1,890	110.5
브라질	1,211	1,415	1,399	81.8

주 : 1993, 1~10월 평균치임

* 평균치(A)/한국 도매가격(1,710)×100

자료 : 양계협회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국산 닭고기가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가? 육계의 경우 생산비 구성을 보면 57% 이상이 사료비, 17% 이상이 병아리대, 12% 이상이 자가 노력비로서 86% 이상이 이 세가지 요소에 의하여 좌우된다. 그렇다면 사료비는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가? 우선 사료의 구입은 현금구입과 외상구입에 따라 구입단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사료의 공동구입이나 벌크사료 이용으로 구입단가를 낮추고, 자동화 시스템도입, 우수한 병아리 선택 등으로 사료 요구율을 가능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사료 원료곡의 관세의 면세와 배합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속히 관철되도록 요구하되 면세된 세금만큼 배합사료에 대한 농가 지불가격이 인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료 제조 업자만 배불리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1년 이래 사료원료곡 수입선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료곡물 구입가격이 인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농가 지불 가격은 변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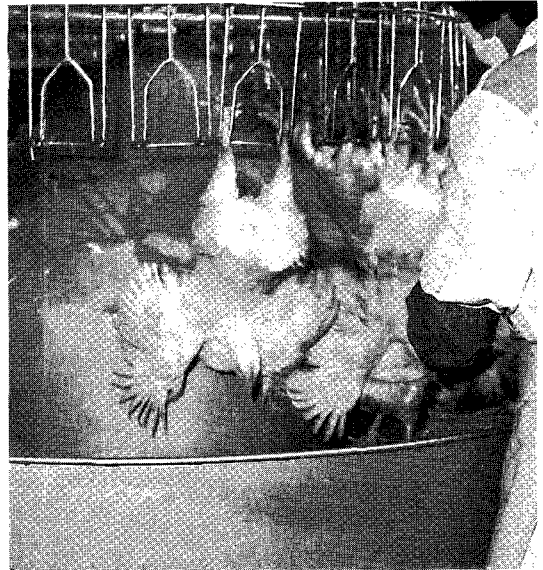


표2. 계산물 생산비 구성

항 목	닭 고 기		계 란	
	원/kg	%	원/kg	%
사 료 비	564.6	57.2	536.7	55.8
가 축 비	170.1	17.2	214.5	22.3
자가노력비	123.6	12.5	74.1	7.7
방역치료비	24.7	2.5	0.7	0.1
수도광열비	17.8	1.8	0.6	0.1
기 타 비 용	86.7	8.8	135.5	14.1
합 계	987.5	100.0	962.1	100.0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 1993

없었던 일만 보아도 관세나 부가가치세의 인하가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농정활동은 농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므로 농가의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이러한 생산자 조직이 활성화되면 사료회사와 단체제약을 체결함으로써 사료구입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당장

시급한 것이 육계 및 계란의 유통체제 개선이다. 우선 위생적으로 처리된 육계 및 계란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살아 남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육계의 경우 아직도 전 근대적인 비위생적 처리 과정이 남아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불안한 상태이다.

실제로 닭고기 수입이 개방되어도 냉장 닭고기는 수입되기 어렵고 주로 냉동 닭고기가 수입될 것이므로 위생적인 처리 문제만 철저히 지키면서 냉장 닭고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냉장 닭고기 공급은 우리의 몫으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양계산물의 유통체제 확립은 더욱 절박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된다.

물론 가공용 육계부분은 수입 냉동 닭고기에게 어쩔 수 없이 내주지 않으면 안될 것이므로 그 만큼은 국내산 닭고기 생산이 축소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은 육계산물의 대일 수출이다. 지금까지 대일 수출을 놓고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수출을 한 실적은 전무하다. 그것은 그만큼 일본의 시장벽이 두텁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양계분야의 노력이 부진한 탓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서라도 일본 닭고기 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가 이루어짐은 물론 일본의 해당 기관과 면밀한 접촉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선 닭고기가 일본 시장에 상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나라 도계시설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무통관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방안은 모두가 개별농가의 힘으



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따라서, 생산농가가 주도한 협동조합이나 농산법인 형태의 농가조직이 수평적으로나 수직적으로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양계산업의 나갈 방향은 수평적, 수직적 일관경영(통합경영, 계열화)으로 귀착된다.

따라서 정부가 양계산물의 일부나마 자급할 의사가 있다면 생산자 단체중심의 일관 경영 체제의 정착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마침 GATT/UR 협상 결과도 이러한 방식의 지원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있다.

3. 육계 수입개방에 대응한 일관경영체제

(1) 용어의 정의

일관경영체제(Integrated production system)의 사전적 표현을 빌리면 “1차 상품에서 2차, 3차 또는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자사의 손으로 생산하는 체제”로 정의 된다. 이를 육계경영에 적용해보면 육계를 소유하는 1차산업에서

부화, 사료제조, 도계 등의 2차산업과 판매 등 3차산업 또는 닭요리 등 최종상품에 이르기 까지 경영주체(기업)에 의하여 생산하는 체제로 정의 되어 결국 지금까지 계열화, 통합화로 규정하던 경영방식임을 알 수 있다.(원래 계열화는 기업집단의 울타리 안에 있는 기업상호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종래의 자금 자족적 경제체제에서는 농가가 원료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을 직접 담당하여 자가소비에 충당하는 일관(통합)체제(Integrated system)이었으나 농업이 상업농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는 원료농산물 생산만을 담당하고 가공은 독립된 공업부문에서 담당하게 되는 분화체제(Differentiated system)로 바뀌다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식품공업의 발달과 경영 규모의 확대로 수직적으로 분화된 각 단계를 원료생산과 농산가공이 동일기업체에 의해 재결합하는 일관(통합)체제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다.

(2) 일관경영 체제의 개요

현재의 일반적인 농업 및 농업관련산업의 각 부문은 개별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독립된 경영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 마다에서 참여자 이윤이 충족되다 보면 자연히 최종소비자가 가격은 높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농업이라는 산업을 다른 산업과 관련지어 볼때 산업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종래와는 달리 농업도 다른 산업과 연관을 맺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의 농업 경영활동을 이해함에 있어 생산활동 그 자체는

물론 생산자재의 구입, 생산물의 저장, 가공, 수송, 판매 등 유통단계 까지를 하나의 일관된 체제로 묶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농축산물의 수입자유화 요구와 함께 농업문제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종래의 중산위주의 농업정책만으로는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농업생산과 유통을 하나로 묶어 해결하려는 시도가 바로 농업생산 및 유통의 일관경영체제이다.

요컨대 농축산물의 일관경영체제란 흔히 대기업이 수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면서 능률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농업부문에도 농용자재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산물 생육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재를 위한 가공 농축산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경영체(integrator=계열주체)가 일괄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여 결국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3) 일관경영 체제의 일반적 기대효과

일관경영 체제에서는 경영전체를 하나의 경영주체가 종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과세부과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절세가 가능하며 최종산물 처분단계에서만 이윤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의 중심점을 단일화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개별 경영 체제에 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② 자재의 조달 사육관리 가공처리 등의 상품화 과정이 하나의 경영체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서 제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제품의 위생적 처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③ 경영주체는 자기상표에 대한 광고, 선전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계열 주체와 수평적으로 통합할 경우 공동광고 활동이 가능하여 제품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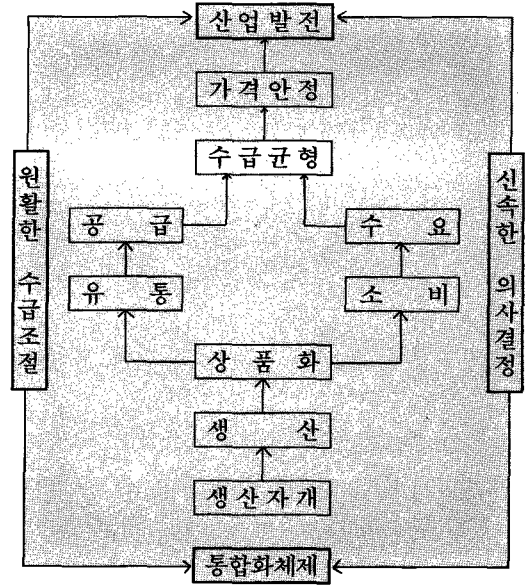
④ 일관경영체제에서는 전체의 생산을 소수의 경영체가 관장할 수 있으므로 생산조절을 위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수급조절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품의 수출입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과잉 또는 생산의 진폭을 완화 시킬 수 있다.

⑤ 자재의 공급업체와 같은 연관산업과의 거래교섭력을 높여 산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산업간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⑥ 이상의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며 종국적으로는 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1과 같다.

영 체제에 의한 생산비와 개별 경영 체제에 의한 생산비를 비교하면 일관경영 체제를 통하여 생닭의 경우 9.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도계육의 경우는 오히려 일관경영체제의 생산비가 더 드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러



(그림1) 일관경영 체제의 기대 효과

4. 일관경영 체제의 비용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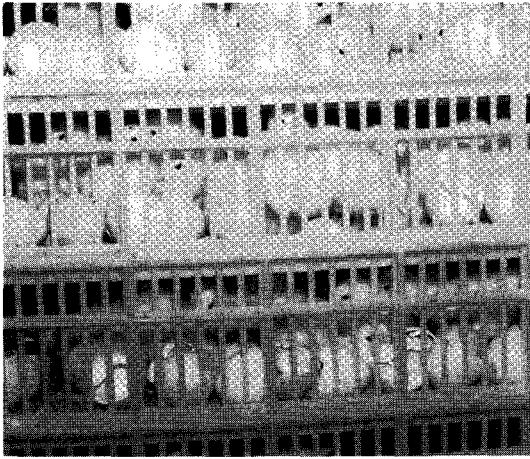
이상의 일관경영 체제의 기대효과는 관념적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도 계량화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시산한 것이다.

육계 및 계산물의 생산비(제조원가 개념) 구성은 생닭의 경우 병아리대, 사료비, 약품 및 연료대, 사육보수 등이고 도계육의 경우는 생닭값과 도계 수수료 등이며, 닭요리의 경우는 도계육가격과 가공 비용 등이다.

이제, 생산단계의 생산비를 합계하여 일관경

한 현상은 1992년 육계가격이 장기간 낮게 유지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닭고기요리 생산비는 일관경영의 경우 30.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번에는 도계육이나 닭고기요리를 최종소비자에게 조달해 줄 수 있는 도매 또는 소매가격 비교를 시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별 경영 체제의 최종 소비자 지불가격은 시장가격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일관경영 체제의 규범적 최종소비자 가격을 규정하기는 쉽지 않은 난점이 있다.



그렇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업종별 이익률이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육계 일관 경영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투하한 자본금에 대한 댓가로 취할 수 있는 이익률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률이야 기업의 입장에서는 많을 수록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을 수록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영주체가 경영의 댓가로 취할 수 있는 이익률로서 택할수 있는 많은 조합중에서 몇개의 대안을 기준하여 계산한 규범적 판매가격을 명시하고 이를 실제로 같은 단계에서 거래되는 개별 경영 체제의 시장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비용절감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일관경영 체제에 의한 비용절감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① 경영주체가 도계육을 최종소비재로하여 도매행위만 하되 이익률을 15%로 가정할 경우 개별 경영 체제에 의할 경우에 비하여 29.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익률을 낮게 가정할 수록 절감되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높게 가정할 수록 절감되는 가능성은

낮아짐을 볼 수 있다.

② 경영주체가 닭고기 요리를 최종 소비재로 하여 소매행위를 하는 경우 도계단계와 닭고기 요리 제조 단계의 두 과정을 거치므로 이익률을 20%로 가정할 경우 개별 경영 체제와 비교하여 66.9%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때도 이익률을 다르게 가정할 경우에는 절감 가능성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1992년 일관경영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경영주체의 실제 성적에 의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경영주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치는 실제성적에 비하여 비용절감 가능성이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앞으로 육계 일관경영 체제가 정착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자동화 및 기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계산물 시장 개방에 의한 충격은 다소 완화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5. 맺는말

일관경영체제가 계열화 통합경영 등의 이름으로 축산정책의 일환으로 채택되어 육계의 경우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접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육계의 계열화 사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계육의 수입 개방을 눈앞에 두고 대안이 별로 없는 딱한 실정이다. 따라서 쌀만을 식량으로 생각한 나머지 쌀의 수입 개방을 막기 위하여 축산물 협상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던 지난날의 농정을 반성하고 차체에 획기적인 지원을 서두르지 않으면 결국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여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양계**